

동아시아학술원의 연구·교육의 통합 모델과 그 성과*

陳在教**

- | | |
|---|--------------------------------------|
| I. 머리말 | IV. 대학원 한문 고전번역 협동과정과
비 학위 교육프로그램 |
| II. 대학 연구기관의 새로운 도전-교육
기능의 결합 | V. 맺음말 |
| III. 동아시아학술원의 교육·연구·정보의
통합과 대학원 동아시아학과 | |

• 국문초록

동아시아학술원은 2000년 개원과 함께 연구를 교육과 결합하는 방식을 기획하며, 이를 실천해 왔다. 대학의 연구기관에서 교육 기능을 함께 운영하는 것은 드물다. 그 만큼 지난 20여 년간의 동아시아학술원의 대학원 교육과 그 성과는 현재 진행형이다. 분과학문이 굳건한 대학의 학문 생태계에서 연구기관이 연구와 교육을 결합하는 모델을 실천하는 방식은 여전히 유효하다. 동아시아학술원은 이러한 방향성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 연구 성과를 교육에 환원하는 이른바 연구 성과가 시차 없이 교육으로 이월되고, 여기에 디지털 동아시아학의 성과가 결합하는 방식은 한국인문학의 創新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제어 : 동아시아학술원, 연구·교육의 통합, 대학원 동아시아학과, 한문 고전번역 협동과정, 존경각, 디지털 동아시아학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8S1A6A3A01023515).

** 성균관대학교 교수

I. 머리말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은 2020년 올해 개원 20주년을 맞이한다. 대학의 연구기관이 20년을 맞이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하지만 동아시아학술원의 개원 20년은 대학의 학술과 교육에서 적지 않은 자취를 남긴 기간이라는 점에서 남다르다. 개원 당시 동아시아학술원은 몇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대학 연구기관의 비전을 제시하였다. 인문학과 사회과학이 결합하는 융합연구, 연구기관 내에 대학원과 학부의 교육 기능을 개설하고 연구와 교육을 결합한 시스템, 옛 成均館의 圖書館인 尊經閣을 확대·개편하여 고전자료의 수집과 함께 디지털 동아시아학 관련 학술정보관의 지향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방향은 기존의 대학 연구기관에서는 볼 수 없는 새로운 길을 보여주기에 충분하였다.

현재 한국 대학의 연구기관에서 동양학(동아시아학)을 이름에 내세운 연구소가 적지 않은데 대체로 일국적 시각을 넘어서 自國學의 객관적 지평을 추구하는 것을 지향한다. 전근대 동아시아에서 한자문화권의 전통과 한문 고전학의 역사적 전통을 감안하면 대학 내에서도 이것은 중요한 학술적 부분을 차지한다. 이 점에서 동양학(동아시아학)을 기관의 연구 방향으로 제시하였다는 것은 자국학의 일국 중심과는 학술적 방향성을 달리하고 있다. 1961년에 설립된 서울대의 ‘동아문화 연구소’, 1970년에 설립된 단국대의 ‘동양학연구소(현 동양학연구원)’, 2000년에 설립된 성균관대의 ‘동아시아학술원’ 등이 그러하다.

동아시아학술원은 개원할 때부터 연구와 교육을 동시에 고려하였다. 당시 김시업 대동문화연구원장의 「동아시아학술원 개원보고」를 보면 ‘학술원’의 목표와 방향을 “첫째 한국학·아시아학 분야의 집중 연구 및 이론의 개발, 둘째 21세기 새로운 시대에 대응하는 방향 수립, 셋째 학문 연구와 교육의 유기적 결합, 넷째 동아시아학의 국제적 교류”라고 밝히고 있다.¹⁾ 여기서 연구와 교육의 유기적 결합이라는 방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점이 다른 대학의 연구기관이 가지지 못한 동아시아학술원의 特長이기 때문이다. 다수의 대학 연구기관은 교육 기능을 가지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다. 교육 기능의 부재로 장기적으로 분과학문의 분절적 연속이라는 견고한 틀에서

1) 김시업·마인섭 편, 『동아시아학의 모색과 지향』, 성균관대 출판부, 2005, 320면.

벗어나기가 쉽지 않고, 교육과 결합하는 학술적 담론의 제기는 물론 장기적 학술 담론의 기획조차 어렵다. 설사 장기적인 학술 담론을 기획한다 하더라도, 기존의 대학 연구기관의 구조로서는 이를 실현하는 데 적지 않은 난관이 있다. 대학의 연구기관이 학술 담론을 주도적으로 견인하지 못한 것은 학술 담론을 기획하고 향후 이를 실현할 수 있는 학술 협력자와 학문 후속세대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학술적 성과를 바로 교육과 결합할 수 있는 대학 내 제도적 장치와 함께 연구자가 학술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학술적 이슈의 제기가 있어야 가능하다.

동아시아학술원은 기존의 대학 연구기관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동아시아학’의 정립을 통하여 새로운 연구 시각과 방법으로 학문 후속세대를 결합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러한 모색의 결과로 기획된 것이 바로 연구기관에 교육 기능을 설치하는 것이었다. 동아시아학술원에 대학원과 학부의 교육 기능을 가지게 된 것은 이러한 고민의 결과였다.

이런 점에서 동아시아학술원의 개원 20주년을 한국 대학과 대학의 연구기관의 새로운 모색에 대한 하나의 이정표를 평가한다는 점에서 전혀 의미가 없지 않다. 지난 20년간 동아시아학술원이 대학원을 개설하여 동아시아학을 교육 제도 속에 어떻게 정립하고, 대학의 분과학문의 굳건한 구조에 맞서 어떻게 새로운 방향을 정립해 나갔던 가를 살펴보고자 한다.²⁾

2) 동아시아학술원은 2002년에 대학원에 동아시아학 협동과정을 개설하고, 2007년에는 대학원에 동아시아학과를 개설하였다. 또한, 동아시아학술원은 동아시아학의 체계적 교육·연구의 통합을 위하여 학부에 연계 전공 방식의 동아시아학과 한국학 교육프로그램도 함께 개설하여 운영하기도 하였다. 연계 전공은 한국학만 남겨두고, 동아시아학 연계 전공은 폐지하였다. 이 외에도 동아시아학술원은 국내 최초로 한문 고전의 정리 및 번역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2008년에 민족문화추진회(현: 한국고전번역원)과 MOU를 체결하여 교육과 연구에서 협력하기로 하고, 대학원에 ‘한문 고전번역 협동과정’을 개설한 바 있다. 한문 고전번역 협동과정은 번역의 이론과 이를 실무에 결합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모델을 창출하는 데 교육의 목적을 두고 있다. 한문 고전번역 학위과정(박사)의 개설을 통해 전통 학문의 방대한 자료를 현대적 학술적 자산과 결합하여 창의적인 학술 번역을 위한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하였다. 이는 후술할 것이다.

Ⅱ. 대학 연구기관의 새로운 도전-교육 기능의 결합

성균관대학교는 1998년 건학 600주년을 전후로 유구한 역사적 학술 전통을 대학 내에 제도적으로 되살려 내기 위하여 새로운 학술의 방향을 기획하였다. ‘동아시아학’을 전면에 내세워 대학의 학술을 견인하고 나아가 세계 학계에 발신하려는 야심찬 기획을 하였다. 물론 동아시아학술원은 60년이 넘는 대동문화연구원의 한국학 전통을 계승하면서 동아시아학으로 나아가는 것이기에 자국학과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고민도 없지 않았다.³⁾ 그러한 고민의 일단은 대동문화연구원의 굳건한 토대를 마련하고 연구기관의 길을 제시한 전임 이우성 원장의 발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동아시아학이라고 하지만 한·중·일 삼국에는 각기 자국의 학적 전통이 있어 왔다. 또 그 학적 전통은 각기 자국의 역사적 위치와 조건에 의해 형성되었다. 이 역사적 위치와 조건을 초월해서 동아시아학이라는 한층 더 폭넓은 학을 이룩한다는 것은 결코 간단치 않다. 즉 동아시아학이라는 큰 테두리 속에 자국의 학적 전통을 버리고 그대로 합류할 수 없는 것이다.⁴⁾

‘동아시아학’의 길에 자국학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를 제시하였다. 동아시아 각국이 역사적 조건 위에서 구축해 온 ‘자국의 학적 전통’을 버리고 동아시아학에 그대로 합류할 수 없을 것이라는 언급은 동아시아학의 실체와 관련한 의문이자, 개념에 대한 문제 제기이기도 하다. 이는 학술 장에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하는 동아시아학이 당연히 감내해야 할 문제이지만, 새로운 연구 시각과 방법론에 대한 문제 제기로도 이해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자국학의 굳건한 학적 전통의 구심력을 대학의 학문 장으로 환원하면, 자국학 중심의 분과학문의 틀이라는 난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진다. 그 질문에 답하는 방법은 연구로 대응할 수도 있지만, 새로운 연구의 확산을 교육에 연결하여 기존 대학원 교육의 방향을 전환하는 방식으로도 가능하다. 논리적으로는 새로운 돌파구를 연구에서 찾거나 교

3) 이러한 고민과 대동문화연구원과 동아시아학술원의 관계 설정은 한기형, 「동아시아적 시각에 의한 한국학의 재정립」, 『대동문화연구원 50년: 1958~2008』, 대동문화연구원, 159~176면 참조.

4) 이우성, 「동아시아와 한국」(김시업·마인섭 편, 앞의 2005 책), 15면.

육에서 찾는 방식이 아닌 교육과 연구의 통합에서 찾을 수 있다. 동아시아학은 기본적으로 동아시아 보편을 지향하는 ‘더 폭넓은 학’이라기보다 연구 방법에 가깝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 방법으로서의 동아시아학은 새로운 교육시스템을 통해 자국학의 학적 전통을 創新하여 동아시아학으로 나아갈 수 있다. 동아시아학술원은 이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출발하였다. 무엇보다 2000년 3월 1일 개원한 동아시아학술원은 1999년도에 시작된 21세기 지식기반사회 대비 고등인력양성사업인 BK21(두뇌한국)사업을 계기로 내부 추동력을 얻었다.

본고는 건학이념과 600년이 넘는 역사에 부합되는 동아시아학 분야를 집중 육성하여 새로운 체제와 공간을 마련하였다. 1999년 600주년 기념관 준공에 맞춰 40여 년 역사의 大東文化研究院을 확대 발전시켜 새로운 모습의 연구·교육 기관인 동아시아학술원을 설립하게 된다.⁵⁾

동아시아학술원 설립 취지의 한 대목이다. 당시 1단계 BK21사업은 교육과 연구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학문 후속세대를 양성하는 고등교육의 새로운 비전이었다. 성균관대학교는 1999년 12월 BK21사업에 ‘동아시아 유교문화권 교육연구단’이 선정되자, 그 이듬해에 동아시아학술원을 설립하고 선정된 ‘동아시아 유교문화권 교육·연구단’의 관리를 동아시아학술원에 이관시켰다. 이어서 기존의 대학 연구기관과 달리 동아시아학술원에 교육 기능을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를 두고 대학 차원에서 적지 않게 고민하였다. 외부에 용역까지 주면서 향후 학술원의 방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를 두고 검토하였다. 외부 용역과 자문을 통해 향후 ‘학술원’의 기본 목표를 “건학이념에 따른 숙원사업의 실현-동아시아학의 본산”에 두고, “한국학·동아시아학 분야의 특성화로 선도적 지위 확보, 21세기 국제사회의 중심이념이 될 동양문화에 대한 미래지향적 대응, 인문학의 집중육성을 통한 학문발전의 토대 구축, 교육과 연구의 유기적 결합을 통한 학문발전의 새로운 전략 수립, 혁신적 구조로 학문 분야, 연구 모델 등의 새로운 패러다임 창출”⁶⁾ 등의 몇 가지 추진전략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인

5) 성균관대학교, 『BK21 21세기 지식기반사회 대비 고등인력양성사업 인문·사회 분야 ‘동아시아 유교문화권 교육·연구단’』 지원신청서, 1999.11.8. 28면 참조.

6) 한기형 외, 「동아시아학술원 발전계획(안) 연구 결과 보고」(2차 설명회), 2001년 5월 8일(화). 당시 발표자인 한기형 박사는 한국학술진흥재단(현 한국연구재단)의 전문위원이었다. 필자도 당시 그

추진전략으로 제시한 것 중에 가장 논란이 많았던 사안이 바로 ‘교육과 연구의 유기적 결합을 통한 학문발전의 새로운 전략 수립’이었다. 하지만 격론⁷⁾ 끝에 교육과 연구의 결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그 방향을 대학원에 동아시아학과를 두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후 동아시아학술원은 대학의 인문학 연구기관으로는 처음으로 교육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학과 중심의 분과학문의 틀을 넘어, 새로운 학술 장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

동아시아학술원은 1단계 BK21사업을 주관하면서 대학의 연구기관으로는 새로운 교육·연구의 모델을 제시하였다. 당시 1단계 BK21사업의 제안서에 自國學과 일국의 시야를 넘어 동아시아학을 전면에 내세우고, 새로운 연구기관 모델 제시와 함께 분과학문의 틀을 변화시키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인문학과 일부 사회과학의 동아시아학 관련 학과가 참여하는 학제 간 방식을 추구하는 한편, 동아시아학의 교육·연구를 통합하는 길을 열었다.⁸⁾

이에 2002년부터 동아시아학술원 산하에 대학원 동아시아학 협동과정을 설치하고, 교육·연구를 통합하는 모델을 실천하였다. 대학부설 연구소에 대학원의 교육 기능을 결합한 것은 한국 대학에서는 드문 일이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대학 본부는 교육 기능을 고려하여 동아시아학술원 소속의 전임교수와 연구교수를 초빙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고, 교비로 전임교수 3명과 연구교수 3명을 선발하는 과감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당시로써는 파격적이었다. 대학의 인문학 연구기관에서 파견 형태나 겸직이 아닌 방식으로 전임교수와 연구교수 제도를 둔 것은 이례적이다.⁹⁾

자리에 참석하여 함께 토론한 바 있다.

- 7) 당시 동아시아학술원에 교육 기능을 부여하는 데 대한 여러 반대 논리가 있었지만, 가장 핵심적인 논쟁은 교내에 교육 기능의 한국 대학의 연구기관에 교육 기능을 가진 사례가 없으므로 동아시아학술원도 연구기관에 맞게 연구에 치중해야 한다는 주장과 기존의 분과 학문의 학과에서도 동아시아학술원이 추구하는 교육이 가능한데 굳이 교육 기능을 중복해 교육할 필요가 있느냐는 주장이 있었다. 하지만 BK21사업의 취지가 교육·연구의 결합 모델을 통한 대학의 개혁과 대학구조의 유연함을 추구하는 데 있었고, 새로운 기관인 동아시아학술원을 상정하고 기획한 BK21사업의 ‘동아시아 유교문화권 교육·연구단’은 교육·연구의 통합 모델을 실현할 공간으로 기존의 분과학문 단위의 학과가 아닌 연구기관이 타당하며, 새로운 통합 모델은 새로운 연구기관을 통해 실현할 수 있다는 논리로 맞서 이를 관철시켰다.
- 8) 특히 제1단계 BK21 ‘동아시아 유교문화권 교육·연구단’은 분과학문의 틀을 넘어 융합적 모델을 제시하여 선정되었다. 선정을 계기로 동아시아학술원은 연구인력의 확충과 융합학문의 인식을 교내외에 확산할 수 있었고, 이를 실현하는 교육·연구 방법으로 기관연구를 정착시킬 수 있었다.

한국 대학의 인문·사회학 연구기관에서 본격적인 교육 기능을 부여한 것은 동아시아학술원이 처음이다.

이처럼 대학 차원에서 동아시아학술원을 개원하고 연구기관에 교육 기능을 부여한 것은 거교적 차원에서 장기 비전하에 기획하고, 지원하였기에 가능하였다. 여기에 참여 구성원도 600년의 학술적 전통을 계승하여 한국학·동아시아학 분야를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대학의 장기 비전에 부응했기 때문이기도 하다.¹⁰⁾

현재 한국 및 동아시아학 관련 교육 및 연구는 지나치게 단일 전공별로 세분된 채 분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본 과정은 학제적인 통합교육 및 연구를 실현함으로써 한국 및 동아시아학에 관한 종합적 인식체계를 갖춘 인재를 육성한다. 그동안 한국 내에서의 한국 및 동아시아학 연구는 일국의 주체적 관점만을 고집함으로써 세계적 보편성을 획득하는 데 부족함이 없지 않고, 서양에서의 한국 및 동아시아학 연구는 구체성과 엄밀성이 부족한 가운데 보편성만을 강조함으로써 내실이 없는 경우가 많아 특수성과 보편성을 아우를 수 있는 교육 및 연구풍토를 조성한다. 유교 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적 세계관’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 오늘날 서양의 물질문명이 직면한 문제와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정신적 대안을 마련하여 제시한다.¹¹⁾

동아시아학술원 산하에 있는 대학원 동아시아학과와 교육 목표다. 위에서 대학원 교육의 목적과 방향으로 제시한 것이 다음 두 가지다. 하나는 “동아시아학과 한국

9) 대학의 인문학 연구소에 교수와 연구교수를 두는 방식은 이후 HK 사업의 기획에 반영되었다. 주지하듯이 HK 사업에서 대학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핵심은 연구소에 전임교수를 두고 이들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인문학 연구소로 발전하는 것을 추구하였다. 이 점에서 한국 대학의 방향과 대학 연구기관의 비전을 선도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앞서 실천한 셈이다.

10) 당시 성균관대학교는 대학의 장기발전계획을 세우고 대학의 발전전략을 마련하였다. 당시 동아시아학은 장기발전계획인 “VISION 2010”의 4대 역점분야에 들어감으로써 재단과 학교 본부의 전폭적 지원이 있었다. 동아시아학이 경쟁력에서 비교 우위에 있는 분야이기도 하였지만, 성균관대 교시인 ‘仁義禮智’가 장기발전 전략의 방향인 ‘전통과 첨단’의 조화라는 비전의 방향과 맞았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대학본부와 재단은 동아시아학을 장기 비전의 특성화 대상으로 선정하여 세계수준의 학문 분야로 발전시키고자 하였다.

11) 동아시아학술원 홈페이지(https://aeas.skku.edu/aeas/education/east_asia.do) 대학원 동아시아학과 목표.

및 동아시아학에 관련한 단일 전공 중심의 개별화된 교육과 연구 경향을 극복하고 학제적·통합적 교육·연구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가 “한국 및 동아시아학을 교육·연구함에 있어 한국의 일국적 시각과 전 지구의 다국적 시각을 동시에 배양하도록 함으로써 한국 및 동아시아학의 세계화를 구현”¹²⁾하는 것이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학제적·통합적 교육·연구체계”의 구축이다. 학제적이라는 의미는 사회과학과 인문학의 결합과 인문학 내의 분과 학문 간의 결합을 함께 의미하며, 통합적 교육이란 연구와 교육의 통합을 의미한다. 접미어로 체계라는 말을 첨부한 것은 빅 데이터와 같은 정보(DB와 디지털)가 교육·연구와 연결된 것을 의미한다. 교육과 연구에 필수적인 것이 연구대상인 기초자료를 디지털로 환원하여 이를 가공하여 연구자와 학문 후속세대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대학의 연구기관에 교육 기능을 개설하는 것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교육 기능의 설치와 관련하여 분과학문과의 대립과 협력의 문제, 동아시아학을 바라보는 인식과 시각 등 적지 않은 오해와 견제도 있었다. 그런데 동아시아학술원이 연구기관으로 교육을 기획하게 된 것은 한국 대학의 새로운 방향의 제시를 염두에 두었다. 동아시아학이라는 다소 유연한 학문 단위를 통해 인문학의 학문 분야 간의 칸막이를 축소하거나 제거함으로써 그 경계를 얇게 하여 새로운 학문 분야를 제시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었다. 여기에는 기초학문의 위기와 인문학의 고립을 초래한 분과학문 체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찾고, 서구학문의 무분별한 추종이나 민족주의적 학문 유통에 의한 고립을 극복하려는 복안도 있었다. 실제로 학제 간 교육을 기반으로 교육·연구의 통합을 확대하면 새로운 연구방법론의 생성은 물론 분과학문 단위의 분절체제의 문제점도 보완할 수 있으며, 또한 대학구조의 다원화와 함께 학문적 협력과 학문적 경쟁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대학의 학문 생태계 내에서 학문재생산 구조의 구체적 모델을 제시할 수도 있다고 판단한 결과였다.

12) 동아시아학술원 홈페이지(https://aeas.skku.edu/aeas/education/east_asia.do) 대학원 동아시아학과 목적.

Ⅲ. 동아시아학술원의 교육·연구·정보의 통합과 대학원 동아시아학과

동아시아학술원은 기본적으로 동아시아학을 전면에 내세운 연구기관이다. 동아시아학술원이 추구하는 동아시아학은 서구 편향의 지역학(Area Studies)이나 제국학으로서의 동양학이 아니다. 일국 중심의 배타적 自國 중심의 관점을 극복하려는 주체적 학문 태도를 지향한다. 이 점에서 동아시아학은 연구의 방법이자 시각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교육’의 융합을 통한 학제 간 넘나듦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그 방법과 시각은 수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동적이다.¹³⁾

동아시아학술원은 2단계 BK21사업의 계획서에서 향후 동아시아학의 방향을 이렇게 언급한 바 있다.

‘동아시아학’은 인문학 분야의 학제적 연구와 더불어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학제적 연구를 통해 새로운 학문의 논리와 구조를 창출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언어·문화, 사상·이념, 정치·경제 등 다각적인 연구 시각의 경합과 협력의 과정을 거쳐, 동아시아학의 학문 내적 구조를 다층적 복합체로 구성할 것이다. 역사적으로 동아시아가 동질적인 사회로 구성되지 않았듯이, 동아시아학 또한 동아시아 지역 내부에 존재하는 차이와 불균질성을 포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동아시아의 내재적 원리를 발견하고 그 원리에 근거해서 다시 동아시아를 인식하는 새로운 학문적 지평을 창출하고자 한다.¹⁴⁾

BK21은 기본적으로 교육·연구 통합을 토대로 한 새로운 학문 후속세대를 위한 인력 양성사업이다. 이 사업은 교육·연구를 통합하여 동아시아학을 추구하려는 데 중요한 현실적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동아시아학술원이 추구하는 동아시아학은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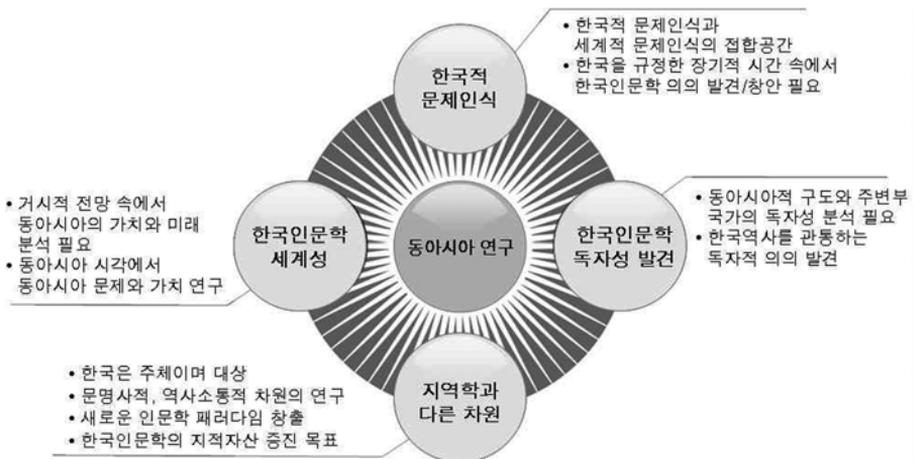
13)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에서 HK 사업의 장기주제로 현재 인문학의 새로운 대안으로 ‘사회인문학’을 제시하였다. 사회인문학은 분과학문의 틀을 극복하고 파편적 지식을 넘어서기 위하여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통합을 통한 공공성의 의미를 제시하였다. 사회인문학은 방법과 시각을 기반으로 인문학의 창신을 제시한 바 있지만, 대학 내의 제도적 틀의 변화를 견인하지 못함으로써 굳건한 분과 학문의 틀 속으로 환원한 느낌이다. 사회인문학과 관련한 구체적인 제안은 백영서, 「사회인문학의 지평을 열며」, 『東方學志』 149, 2010, 1~36면 참조.

14) 동아시아학술원 제 2단계 BK21사업 신청서 『동아시아학 핵심인재 육성을 위한 융합사업단』 205~206면 참조.

학문의 학제 간 연구를 기반으로 동아시아의 내재적 원리를 발견하여 동아시아를 새롭게 인식하는 학문적 지평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아시아학술원이 추구하는 동아시아학은 동아시아의 역사적·문화적 경험과 사회 현실을 비교·연구하여 주체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세계 학계와 소통하는 방법론이자 시각을 의미한다. 이러한 동아시아학 연구는 몇 가지 점에서 학술적 의미를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향후 한국인문학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다. 여기서 동아시아 연구의 구체적인 학술적 의미를 몇 가지 거론할 수 있겠다.

첫째, 동아시아는 ‘한국적 문제의식’과 세계적 문제의식의 접합 공간이라는 사실이 다. 그런 점에서 ‘동아시아’는 일단 한국 학술의 독자적 의의를 발견하는 토대다. 주지하듯이 한반도는 ‘조공-책봉체제’와 ‘식민지-제국주의’를 거쳐 ‘냉전질서-분단’의 시대를 관통해 왔다. 특히 동아시아의 구도 속에서 한반도는 주변부 국가로 존재한 역사적 경험이 많아 그 독자성을 분석하는 것은 여전히 유효하다. ‘한국’은 연구의 주체이자 대상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둘째, 동아시아 연구는 한국과 인접 지역을 문명사적, 역사적 차원에서 세계화하려는 것이다. 그 범주도 근대에 들어와 확정된 국민국가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유동하는 공간으로서의 동아시아를 상정하여 연구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그림 1〉 동아시아학술원의 동아시아 연구의 방향과 맥락

첫째, 동아시아학은 동아시아를 거시적인 역사전망 속에서 조망하며 그 가치와 미래를 학문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것인 바, 이는 동아시아 내부의 시각에서 동아시아의 문제와 가치를 연구하는 시각과 방법이다.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¹⁵⁾

동아시아학술원은 이러한 동아시아학을 교육과 연구에서 접목하여 안팎으로 성과를 내었다. 우선 분과학문과 自國學의 견고한 틀과 대립하기보다 분과학문과 접촉하며 협력하고자 하였다. 때로는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새로운 교육·연구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교내외와 국내외에 자극을 주었다. 여기에 동아시아학의 새로운 시각과 방법을 내세워 기존 대학에서 굳건하게 자리 잡은 분과학문의 변화를 견인해 내고자 하였다. 변화를 위한 견인은 개인 연구의 차원에서 이루어지기보다 대학의 제도적 틀의 변화와 변화된 제도의 틀 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그래야 변화의 실천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아시아학술원은 대형 국책사업에 교내외 다양한 분과학문 연구자를 참여시켰다. 이를 통해 동아시아와 관련한 장기주제를 공동연구하면서 세분화에 치중하는 분과학문 연구자의 시각과 연구 방법을 변화시키고자 하였다. 사실 공동연구에 참여하는 분과학문 연구자들이 지닌 분과학문의 인식은 굳건하였다. 세분화가 오히려 학문의 객관성과 질적 수준을 담보할 수 있다는 일반적 관념을 극복하기란 쉽지 않았고 여전히 그 틀을 해체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하였다. 일부 분과학문 연구자들은 동아시아학술원의 공동연구에 참여하면서 오랜 학문적 관행과 연구 방법을 바꾼 사례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았다.

이를 위해 동아시아학술원은 지속해서 학문의 경계를 넘나들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그 제도적 장치를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학술 장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것이 바로 대학원 동아시아학 협동과정과 동아시아학과다. 동아시아학술원은 1999년 BK21의 진입을 계기로 2002년에 일반대학원 동아시아학 협동과정을 신설하여 먼저 석사학위과정을 설치하였다. 이후 2004년에 박사학위과정도 함께 개설하였으며, 이어서 2단계 BK21사업 신청서 계획에 따라 2007년에 대학원 동아시아학과를 신설하였다. 동아시아학과는 석사과정 정원 20명, 박사과정 정원 10명으로 구성하고

15) 동아시아학술원 인문한국 지원사업 지원신청서, 『소통과 확산: 동아시아 연구를 통한 한국인문학의 창신』 2007, 9면 참조.

대학원 교육 체계를 완성하였다.¹⁶⁾

지난 20여 년간 동아시아학술원 산하의 교육 기관인 동아시아학 협동과정과 동아시아학에 입학한 연도별 숫자는 <표 1>과 같다.

<표 1> 대학원 동아시아학과 입학자 현황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입학 생수	9명 석사	8명 석사	11명 석 7 박 4	18명 석 14 박 4	32명 석 22 박 10	25명 석 19 박 6	25명 석 17 박 8	26명 석 15 박 10	20명 석 12 박 8	26명 석 19 박 7
비고	협동	협동	협동	협동	협동	이후 학과		통합 1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입학 생수	29명 석 20 박 9	25명 석 14 박 11	31명 석 21 박 10	35명 석 23 박 12	13명 석 8 박 5	21명 석 14 박 6	27명 석 20 박 7	18명 석 15 박 3	29명 석 25 박 4	
비고					교환 1	통합 1		교환1		

※ 석: 석사, 박: 박사, 협동: 협동과정, 통합: 석박 통합, 전과: 동아시아학과로 소속변경, 학과: 동아시아학과, 교환: 교환학생

2002년 이후 2020년까지 대학원 동아시아학 협동과정과 동아시아학과에 입학한 신입생은 428명이며, 이중 석사가 302명(외국인 138명)이며, 박사가 124명(외국인 32명), 석박사 통합과정 2명이다. 그리고 외국인 학생은 23개국¹⁷⁾ 170명이나 된다. 그리고 그간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학생은 석사 153명이며, 박사 52명이다.

특히 동아시아학술원은 2002년 동아시아학 협동과정을 운영할 때부터, 재학생에게 재학 기간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하여 대학원 교육의 수월성을 추구하였다. 이는 학문 생태계에서 점차 경쟁력을 상실해 가고 있던 인문학 분야의

16) 동아시아학과는 2010년부터는 석·박사통합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나, 지원자 숫자는 미미한 편이다.

17) 동아시아학술원 소속의 대학원 동아시아학 협동과정과 동아시아학과에 입학한 학생의 국적을 보면, 중국, 일본, 베트남, 몽골, 루마니아, 말레이시아, 러시아, 인도, 헝가리, 인도네시아, 코스타리카, 대만, 뉴질랜드, 슬로바키아, 아제르바이잔, 불가리아, 체코, 터키, 리투아니아, 크로아티아, 미국, 네덜란드, 독일 등 23개국이다.

우수한 학문 후속세대를 유치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였다. 이러한 장학제도는 당시 매우 매력적인 유인책이기도 하였다. 더욱이 2006년의 2단계 BK21사업에 선정되면서 2007년에 입학한 대학원 동아시아학과 대학원생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었다. BK21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대학원생도 교내 특성화 장학금이나 외부연구과제 연구 보조수당을 받아 장학금으로 활용하였다. 이러한 장학제도 외에도 1단계 BK21사업과 2단계 BK21사업에 참여한 대학원생들에게 장·단기 해외연수, 방학 동안 북경 대학의 단기 코스로 학점을 이수시키는 등 해외 학계를 체험하고 교류할 기회를 주었고, 논문게재 인센티브 등을 비롯한 다양한 학업장려정책의 혜택을 제공하였다.

대학원 동아시아학과는 대학원생에게 전원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는 혜택과 함께 학제 간 융합 교육을 위하여 다른 대학원에 비해 대학원 수료 학점을 상향하였으며, 동아시아학술원의 기관연구 시스템인 R/C(Research Cluster)에 참여하여 장기 연구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교육 환경을 체험하여 논문 작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배치하였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동아시아학술원은 교육과 연구를 통합하여 어떠한 성과를 내었는지, 몇 가지 사안을 거론해 보기로 한다.

1. 기관 연구(Research Cluster)와 랩(Lab)

‘기관연구’란 ‘HK 사업’처럼 대학 내의 연구소나 연구기관이 일정한 연구 방향성을 가지고 여러 인문학 연구자가 협업하고 공동의 장기 연구주제를 연구하는 전 과정을 말한다. 이를 실현하는 방식은 이공계의 실험실인 랩(Lab)과 비슷하다. 사실 기관연구(Research Cluster, 이후 R/C로 약칭함)는 동아시아학의 경쟁력과 대학 내 동아시아학의 학문적 위상을 높이고, 학문 생태계에서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는 방법의 하나였다. R/C는 기본적으로 교내의 연구자 집단이 의제를 제시하여 학술원이 동의하면 언제나 함께 연구할 수 있다. 하지만 동아시아학술원은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자의 기대와 달리 일정한 학술적 성과를 내지 못하면 중단시킨다. 성과를 낼 경우, 다른 장기주제로 재진입하고자 하면 그것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 점에서 R/C의 진입과 진출은 유연하고 개방적이다.

학문 후속세대인 대학원생도 이 R/C에 참여하여 장기주제를 토대로 학위논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R/C를 통한 연구와 교육의 결합과 운영방식은 이공계의 ‘Lab’과 마찬가지로 연구자의 출입과 장기주제에 관심을 가진 대학원생의 진출·진입도 열어두었다. 이를테면 R/C에 참여하는 연구집단은 공동의 주제를 두고 학술적 성취를 내기 위해 자료의 수집과 가공, 해석과 분석 등을 토론하고 그 결과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R/C에 참여하는 연구자들은 ‘Lab’ 내에서 연구 과정과 연구 결과를 공유할 수 있다.

여기에 동아시아학술원은 선정된 R/C에 일정 기간 행정과 재정의 지원을 한다. 개인 연구자가 할 수 없는 주제를 집단 지성의 공동연구로 학술적 성과를 효율적으로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러한 지원과 주제의 방향이 어느 정도 명료해지면, 참여 연구자들이 연구주제를 외부 연구비로 쉽게 연결하여 연구주제의 심화와 함께 학술적 성과를 내기가 쉽다. 동아시아학술원의 연구비 수주가 많은 것은 이러한 R/C를 운영한 결과다.

무엇보다 이러한 R/C의 운영은 분과학문 전공자를 넘어 다양한 전공자가 협업할 수 있는 장점과 함께, 연구자 개인도 그 과정에서 분과학문의 틀로는 볼 수 없던 다양한 견해와 시각을 획득할 수 있다는 사실에 특징이 있다. 이 점에서 동아시아학술원 R/C는 기존의 분과학문의 대학시스템과 여기에 익숙한 개인연구가 접근할 수 없는 새로운 학술 장의 제시다. 이는 대학의 연구기관이 담당해야 할 몫이자, 새로운 학술적 방법의 제기이기도 하다. 그간 동아시아학술원에서 운영했거나, 운영하는 R/C의 사례를 들면 <표 2>와 같다.

<표 2> 동아시아학술원의 R/C 사례¹⁸⁾

R/C 주제	기초자료	연구 내용
①전근대 동아시아 자료 학 연구	동아시아 고대사회 출토자료	동아시아 고대사회 출토문자자료의 형태와 기능에 관한 연구

18) 동아시아학술원 R/C는 유동적이며 고정적이지 않다. 특히 R/C가 활성화되어 구체적 성과가 드러나면 ‘중점 R/C’로 승격하여 동아시아학술원의 집중적 지원을 받는다. ‘중점 R/C’의 성과가 있으면 그 연구 성과를 학술 저서로 간행하거나, 연구과제에 지원하여 DB로 구축하는 과정을 거친다. 또한, 일반 R/C의 경우 진출·진입이 어렵지 않고, 정해진 절차를 거쳐 R/C가 되면, 이 또한 일정한 지원을 받는다.

②한국사회 장기변동	단성현 호적, 대구부 호적, 전근대 족보	역사 인구학의 관점에서 한국사회의 장기 변동 연구(사회사, 인구사)
③한국의 주자학과 경학 자료 DB의 구축과 확산	『한국경학자료집성』과 관련 경학 자료	한국의 경학 자료를 통해 동아시아 주자학의 변주와 전통적 지식 체계의 형성과 변용을 고찰. 전통학문과 근대학문의 연관성을 조망하여 유교 문화의 새로운 해석을 통해 동아시아학을 재구성
④전근대 동아시아 각국의 지식·정보의 소통	필기 자료와 사행록 (연행록과 통신사 기록) 등	전근대 문예와 학술 지식의 생성과 유통을 통해 교류의 실상을 파악
⑤‘근대 이행기’의 동아시아	19세기 전후의 관련 史料	18세기·20세기 중반의 근대 이행기의 동아시아를 연구대상으로 ‘과거와 미래’, ‘주체와 타자’가 상호 소통하는 새로운 시각을 통해 동아시아사를 재인식
⑥동아시아 근대 학술 사상과 문화제도	근대 신문과 잡지, 간행 서적과 총독부 자료	근대학술의 규범과 제도 창출, 제국과 국가의 자본 논리와 의 길항과 근대적 추동
⑦동아시아 근대/지식의 형성과 교섭	식민지 검열 자료와 식민지 관련 자료	한국의 근대적 지식과 제도를 동아시아적 차원에서 분석, 근대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틀을 모색

이러한 R/C는 향후 DB를 구축하거나 현재 구축하여 제공되는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교육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동아시아학술원은 2000년 개원과 함께 장기주제를 기획하고 이를 R/C로 실현한 바 있다. 더욱이 R/C는 지난 20여 년간 연구 성과의 도출을 보장하는 기관 연구의 핵심이다. 동아시아학술원은 오랜 기간 R/C의 운영 경험을 통해 대학원생, 신진연구 인력을 참여시키고, 연구 결과를 대학원 교과목과 연결하는 등 연구와 교육의 순환구조를 만들어 왔다.

이러한 R/C는 多 전공의 연구자가 참여하고 여기에 대학원생도 함께 참여하는 R/C의 재구조화는 향후 동아시아학술원의 학술적 비전을 위해 필요하다. 이를 위해 Research Cluster Tree로의 발전적 재구조화도 구상하고 실현해야 연구·교육의 새로운 통합 모델을 통해 동아시아학 교육의 새로운 방법론을 개척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연구 결과가 교육에 반영되고, 교육과정에 R/C의 연구단위가 링크되는 구조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융합을 바탕으로 한 장기주제를 기획하고, 이를 보다 세분화한 R/C는 ‘RC Tree’의 형태로 세분화하는 구조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다. 이는 ‘RC Tree’가 성숙하면서 향후 학술적 결실을 얻는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기 위한 것인데, 이를 위하여 학문 후속세대인 대학원생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테면 동아시아학 관련 전공 교수와 대학원생이 참여하는 R/C의 전 단계로 ‘RC Tree’를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이는 분과학문이나 협소한 전공의 틀을 넘어서는데 유효할 것이다. 특히 지도교수 중심의 ‘RC Tree’에 대학원생이 참여하는 한편, 대학원생이 주도하는 ‘RC Tree’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도 있다. 이러한 장치를 통해 대학원생은 강의 시간 이외에도 교수 주도가 주도하는 ‘RC Tree’와 대학원생이 주도하여 만든 ‘RC Tree’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연구의 지평을 넓히고 새로운 연구의 시각과 함께 방법론을 심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각 ‘RC Tree’가 성장하면 정식 R/C로 만들어 RC와 ‘RC Tree’ 사이에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그물망 형태의 RC를 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향후 동아시아는 이러한 R/C의 구조화를 구축함으로써 향후 동아시아학술원이 ‘연구·교육’의 통합 단위인 R/C를 통해 안정적이며 장기적인 연구를 지향할 수 있다. 이 경우, 학문 후속세대인 대학원생도 정기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학문 비전으로 혹은 학위논문으로 제출할 수도 있을 것이다.

RC를 기반으로 학술적 성과와 함께 디지털 구축, 이를 통한 학위논문으로까지 이어진 대표적인 사례가 호적 및 족보 관련한 R/C다. 이 R/C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 ‘경상도 단성현 호적 전산화 사업’을 통해 호적 DB를 구축하였고, 2006년도부터 2016까지 ‘경상도 대구부 호적 전산화 사업’을 진행하여 BD로 구축하였다. 이 호적 DB는 ‘역사 인구학’의 새로운 학술 주제를 제시함으로써 세계 학계와 소통한 바 있다. 이 외에도 전근대 조공체계와 국가 질서와 관련한 연행록 R/C도 2012년부터 10년 사업에 선정되어 조선조 후기 연행록의 원문입력과 구두, 검색기능 등을 고려하여 DB를 구축하고 있다. 그간 R/C는 학술 저서와 학위논문의 연구 결과로 도출되기도 하였다. 관련한 석·박사학위 논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②의 ‘한국사회 장기변동’과 관련한 석·박사 논문

한상우, 「朝鮮後期 兩班層의 親族 네트워크」 2015.

주 매, 「朝鮮後期 家族 및 親族秩序 研究-17~19세기 大邱 月村지역을 중심으로」, 2015.

이동규, 「朝鮮後期 軍官職役者 研究」, 2017.

김성오, 「17世紀 陝川 地域 兩班의 婚姻 네트워크-『晉陽河氏世譜』의 분석을 통하여」, 2017.

- ③의 ‘한국의 주자학과 경학 자료 DB의 구축과 확산’과 관련한 박사 논문
유민정, 「한·중·일의 수사학적 경전해석-『孟子』 주석서를 중심으로」, 2019.
갈소희, 「동아시아 예치시스템에 대한 내재적 접근-중국 대외사상의 전통과 그 굴절 및 변용」, 2019.
- ④의 ‘전근대 동아시아 각국의 지식·정보의 소통’과 관련한 박사 논문
안나미, 「17세기 전후 韓中 문학 교류 연구-晚明 文學 수용 양상을 중심으로」, 2011.
신로사, 「1811년 辛未通信使行과 朝日 문화교류-筆談·唱酬을 중심으로」, 2011.
임명걸, 「18世紀 北學派 燕行錄 연구」, 2013.
양영옥, 「趙在三의 『松南雜識』 연구」, 2017.
임영길, 「19세기 前半 燕行錄의 특성과 朝·淸 文化 交流의 양상」, 2018.
바 양, 「李鼎受의 『游燕錄』 연구」, 2020.
- ⑥의 ‘동아시아 근대학술·사상과 문화제도’와 관련한 박사 논문
손성준, 「영웅 서사의 동아시아 수용과 중역의 원본성-서구 텍스트의 한국적 재 맥락화를 중심으로」, 2012.
유석환, 「근대 문학 시장의 형성과 신문·잡지의 역할」 2013.
최진호, 「한국의 루쉰 수용과 현대중국의 상상」, 2017.
- ⑦의 ‘동아시아 근대지식의 형성과 교섭’과 관련한 석·박사 논문
류진희, 「해방기 탈식민 주체의 젠더전략-여성서 사의 창출을 중심으로」, 2015.
하시모토세리, 「한국 근대공원의 형성-공공성의 관점에서 본 식민과 탈식민의 맥락」, 2016.
장 신, 「1930·40년대 조선총독부의 사상전향정책 연구」, 2020.
최성희, 「조선총독부의 영화검열정책과 ‘조선영화’의 상관성」, 2008.
박초록, 「식민지 문화정책과 박물관의 운영」, 2014.

그런데 동아시아학술원이 운영하는 R/C는 기관이 중점 지원하는 것도 있고, 가지(Tree)형 R/C도 있다. 이들 R/C는 학술적 성과 여부에 따라 진·출입과 상하 이동은 개방적이다. 이를테면 소기의 학술적 성과를 달성하면 기존 R/C는 소멸하며, 향후 다시 장기주제를 기획하여 연구자를 구성하여 절차를 밟아 R/C로 진입하면 된다.

기관연구인 R/C는 동아시아학술원의 개원부터 제기한 것이지만, R/C의 운영은 동아시아학술원의 'HK 사업'의 지향이자 핵심적 연구방법론이기도 하였다. 주지하듯이 'HK 사업'은 대학의 특성과 함께 대학 연구소의 특성을 고려하여 의제를 설정하고, 기관연구로서 인문학의 새로운 연구 방법과 방향을 재정립하고, 이를 통해 인문학 비전을 제시하는 데 있다. 연구기관이 설정한 R/C는 대학 연구소의 성격을 고려한 것이 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HK 사업'의 방향은 대학의 인문학 관련 연구소가 대학 내에 새로운 학술 장을 마련하여 대학 내의 인문학 관련학과 소속연구자의 연구력을 견인하는 역할을 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동아시아학술원의 R/C를 통한 분과학문에서 융합적 학술 장으로 나아가는 방향으로서 의미가 있고, 현재 진행형이다.

동아시아학술원은 이를 고려하여 'HK 사업'의 장기주제로 설정한 R/C를 통해 교내의 분과학문 연구자와 결합하는 방식으로 확산하고자 하였다. 현재 한국 대학에서의 인문학 연구는 대부분 분과학문의 틀 속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연구 자체도 개인연구가 많다. 이는 시간이 많이 주어진다고 해서 기관연구로 자연스럽게 접속되지는 않는다. 대학의 학문 생태계에서 연구기관은 R/C를 통해 분과학문의 연구자를 새로운 학술 장 안으로 끊임없이 호출하여야 한다. 학문적 자극을 주거나 한편으로는 개인연구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현재 대학은 여전히 강건한 분과학문의 틀을 유지한 채 학과와 분과학문 중심성이 강하다. 이러한 대학의 구조에서 학과 중심의 연구자에게 R/C를 강요할 수는 없다. 일부 연구자는 R/C에 참여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참여할 수조차 없는 경우가 많다. 이 역시 향후 동아시아학술원이 좋은 장기주제를 발신하여 해결해야 할 몫이다.

2. 연구와 교육의 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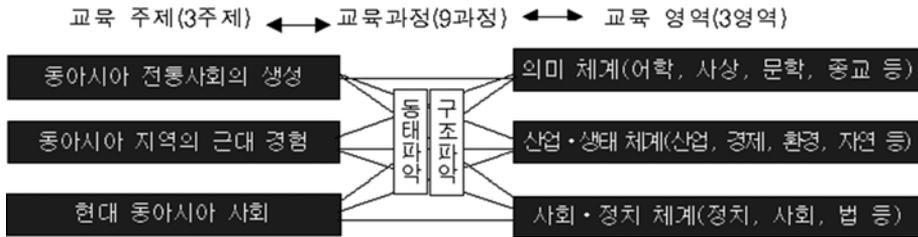
동아시아학술원은 2000년대에 개원하면서 교육 기능을 기획하였다. 1999년 1단계

BK21사업(1999~2006)에 선정된 이후 교육과 연구의 결합을 구체적으로 실천하였다. 이를 위하여 동아시아학술원은 2002년에 동아시아학술원 소속 전임교원을 2명 채용하고, 소속 연구교수 3명을 채용한 뒤 대학원 교육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동아시아학술원은 2002년에 대학원 동아시아학 협동과정을 개설하였고, 2003년에 학부에 한국학 연계 전공을 개설한 뒤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다.

동아시아학술원에 속한 대학원 동아시아 협동 과정(2007년 이후 동아시아학과)은 처음 설립 단계부터 교육과 연구를 결합한 형태로 진행하였다. 교육과 연구를 결합한 방식의 제안은 당시 대학의 학문 생태계와 무관하지 않았다. 한국 및 동아시아학 관련 교육과 연구는 지나치게 단일 전공별로 세분되어 분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一國의 주체적 관점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세계적 보편성과 소통하는 데 많은 문제점도 함께 지니고 있었다. 서구 학계의 경우, 한국학과 동아시아학 연구에서 구체성과 엄밀성이 부족하거나, 보편성만을 강조함으로써 내실 없는 경우가 많았다. 일부 연구자는 지역학의 관점에서 한국학이나 동아시아학을 연구하거나 교육하여 특수성과 보편성을 아우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따라서 특수성과 보편성을 아우를 수 있는 교육과 연구풍토를 위해 학문적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학문적 체계는 교육과 연구의 분리가 아니라, 이 둘을 통합하고 분과학문의 칸막이를 넘어서는 학제적인 통합교육을 지향하였다.

이를 위해 동아시아학술원 산하 대학원 동아시아학과는 동아시아학의 정체성 확립과 학제 간 융합을 강조하였다. 대학원 동아시아학과 운영에서 강조한 것은 연구를 토대로 한 학제 간 융합과 동아시아학의 정체성이었다. 이는 단일 전공 중심의 개별화된 교육 및 칸막이식 분과학문의 연구 경향을 극복하기 위하여 학제적·융합적 교육·연구를 지향하고 R/C의 연구 성과를 교육에 시차 없이 접속하는 것으로 실현하고자 하였다.

대학원 동아시아학과는 연구를 토대로 한 교육 방향은 대체로 세 가지로 잡았다. ① 동아시아 인문학과 사회과학이 결합한 교육체제 ② 전통과 근·현대를 융합한 교육체제 ③ 한국+중국+일본을 아우르는 시각의 교육체제 등이다. 이러한 방향을 토대로 동아시아학과는 교육과 연구를 결합하여 <그림 2>와 같은 교육과정의 방향을 잡고 과목으로 전환하였다.



〈그림 2〉 동아시아학술원 소속 대학원 동아시아학과의 교육과정의 방향

교육과정에서 향후 연구와 교육을 결합하기 위하여 세 영역으로 나누어 동태파악과 구조파악을 함께 고려하였다. 구체적으로 ①의미 체계(해석 및 표상) ②산업·생태 체계(사회토대) ③사회·정치 체계(운영체계)이다. ①의 의미 체계에서는 어학, 사상, 종교, 문화를 통한 전통, 근대, 현대의 의미와 표상체계의 확인과 점검을 고려하였다. ②산업·생태 체계에서는 산업, 환경, 자연, 가족을 통한 전통, 근대, 현대의 재생산 구조의 확인과 점검을 고려하였고, ③의 사회·정치 체계에서는 정치, 사회, 법을 통한 전통, 근대, 현대의 운영체제 및 원리의 확인과 점검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편성하였다.¹⁹⁾ 이는 모두 연구주제와 교육과정의 통합, 동아시아 사회의 구조파악과 동태파악을 통한 연구와 교육의 통합, 동아시아학술원의 기관연구(Research Cluster)와 교육의 결합을 고려한 것임은 물론이다.

더욱이 대학원 동아시아학과의 과목은 대체로 기관연구(Research Cluster)의 장기주제를 과목에 연결하는 방식으로 교육과 연구의 결합을 실천하였다. 대학원에서 교육과 연구의 결합 방식은 정규 과목 외에 R/C의 장기주제를 외부의 연구과제에 연결하면서 분과학문의 대학원 틀에서 벗어나, 다양한 시각과 일국의 범주를 넘어서는 방향에서 학술적 시너지를 얻고자 하였다.²⁰⁾ 앞서 기관연구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19) 동아시아학술원 제2단계 BK21사업 신청서 『동아시아학 핵심인재 육성을 위한 융합 사업단』, 143~144면 참조.

20) 외부연구과제는 연구재단의 BK21, HK, HK+, 토대연구, 한국학진흥사업단을 비롯하여 정부 기관의 다양한 학술 사업 등을 말한다. 동아시아학술원의 연구과제는 기획단계부터 R/C의 장기주제를 토대로 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대체로 동아시아학과 대학원생과 연구자가 이 장기주제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교육과 연구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다는 점이다. 대학원생의 경우,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연구보조원의 임무를 수행하는 한편, 이 과제를 기반으로 자신의 석·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한다는 사실이다. 과제에 참여한 교수는 대학원 교과목의 교육내용으로

다수의 대학원생이 R/C에 참여하여 Lab 방식의 연구와 교육을 체험하면서 학제 간 연구의 중요성과 인식을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테면 동아시아학술원의 기관연구에 연구자 집단 예컨대 ‘교수-연구교수-박사 후 연구원(post-doc)-대학원생’ 등이 연구팀 방식을 통해 교육과 연구를 동시에 체험하도록 하였다. R/C에 참여하는 교수는 자신의 개인 논문 주제와 교육의 내용으로, 연구교수나 박사 후 연구원은 개인 논문으로, 대학원생은 자신의 학위논문 주제로 활용함으로써 교육과 연구의 통합을 실현할 수 있었다. 특히 학술적 이슈를 장기주제로 삼아 교육과 연구를 결합하는 방식은 연구자의 교육 참여의 역할을 증대시키는 기능도 하였다.

또한, 대동을 계승한 동아시아학술원은 동아시아 고전학에 강점을 가지고 있어, 오랜 기간 고전자료의 간행과 보급을 선도하여 학계에 공헌한 바 있다. 대동의 이러한 전통을 이어 동아시아학술원은 국내 최초로 2008년에 대학원에 ‘한문 고전번역 협동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²¹⁾ 한문 고전 자체가 분과 학문의 성격을 넘어서고 있어 학제 간 교육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번역과정에서도 문·사·철 분야를 비롯하여 고전과 관련한 다양한 지식을 체득해야 학술적인 번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동아시아학술원은 이 점을 고려하여 이 대학원 과정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이는 후술할 것이다.

3. 디지털 동아시아학과 교육의 결합

동아시아학술원은 2000년부터 디지털[학술 기초자료의 디지털화] 동아시아학을 추구하고 있다. 디지털 동아시아학은 동아시아학술원 산하에 있는 고문헌 전문의 학술·정보 도서관인 ‘尊經閣’을 자료정보센터로 전환하면서 기획하였다. 존경각은

활용하여 강의하고, 참여 연구자들은 연구보조원인 대학원생들과 연구주제의 설정에 간여하고, 연구 내용 등의 토론에 참여하여 학문적 도움을 주기 때문에 교육에 참여하는 역할이 많아지는 것이다.

21) 동아시아학술원은 동아시아 고전학 중심의 연구기관인 대동문화연구원을 계승하였다. 이러한 동아시아 고전학 전통을 이어 국내 최초로 한문 고전의 정리 및 번역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학원에 ‘한문 고전번역 협동과정’을 개설한 바 있다. ‘한문 고전번역 협동과정’은 고전 번역학으로 석·박사 학위를 준다는 점에서 ‘고전 번역학’의 새로운 교육모델을 창출하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

고문헌을 수집하여 보관하는 것은 물론 국내·외의 기초자료를 수집·정리·가공하여 이를 DB화함으로써 동아시아학의 연구기반을 구축하고, 연구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전환하였다. 이를 위해 존경각은 동아시아학 관련 다양한 학술 DB를 구축하여 동아시아학 관련 연구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R/C와 관련한 장기 연구주제나 방대한 기초자료와 빅 데이터를 학술적으로 가공하기 위하여 연구자와 협력하여 DB로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업무다. 이와 함께 존경각은 동아시아학 관련 DB를 지속해서 관리하고 업데이트함으로써 동아시아학 관련 연구자에게 접근이 쉬운 학술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존경각이 동아시아학술원 내에서 자료·정보 센터 기능을 함으로써 디지털 동아시아학의 허브 역할은 물론 연구자와 함께 교육·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디지털 동아시아학은 ‘자료(디지털)-연구-교육’의 One-Stop의 학문연구 융합시스템의 구축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간 존경각에서 DB로 구축한 대표적인 디지털 동아시아학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디지털 동아시아학

	디지털 동아시아학 이름	홈페이지
①	존경각고서서지시스템	http://oldbook.skku.edu/
②	한국경학자료시스템	http://koco.skku.edu/
③	한국족보자료시스템	http://jokbo.skku.edu/
④	한국주자학용어사시스템	http://jjh.skku.edu/
⑤	대구 및 단성 호적 DB	http://ddmh.skku.edu/
⑥	동아시아 지식과 지식인 지도	http://jisik.skku.edu/ (작업 중)
⑦	연행록 DB	http://kcer.skku.edu/ (작업 중)
⑧	동유럽외교문서저장관리시스템	http://hunbu.skku.edu/ (작업 중)
⑨	한국유경데이터베이스	http://ygc.skku.edu
⑩	아리랑 DB	http://arirang-archive.com/ (작업 중)

위에 제시한 디지털 가공 자료는 단순한 입력 자료가 아니다. 원문 자료의 가공을 통한 연구기초 자료를 기반으로 할 때 성과가 두드러지고, 그 성과물 역시 학문적 ‘리얼리티’를 담보할 수 있다. 기초자료의 가공과 입력을 비롯하여 디지털 관련 다양

한 작업은 대학원생이 참여하여 수행한다. 그리고 위에 제시한 디지털 자료는 R/C의 수행과 연구 결과를 디지털로 만들기 때문에 학문 후속세대의 경우 작업과 연구를 동시에 병행하는 셈이다. 제시한 디지털 동아시아학은 수행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교육과 함께 학위논문의 주제와도 연결되기 마련이다. 이 점에서 디지털 동아시아학은 학문 후속세대인 대학원생의 교육과 연구는 물론 R/C 참여자의 연구와 관련이 깊은 것이다. 특히 R/C와 관련한 연구주제는 이론과 관념적인 방향보다 기초자료를 기반으로 할 때 성과가 두드러지고, 그 성과물 역시 학문적 ‘리얼리티’를 담보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원생은 작업 과정에서 학술적 이슈와 학위논문의 주제를 설정하여 결과를 내기도 한다. 그런 사례를 몇 가지 들면 다음과 같다.

- ②와 관련: 서혜준, 『周易諺解』를 통해 본 조선조 『周易』 번역의 양상-세조의 『康寧殿口訣』, 퇴계의 『周易釋義』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2018.
이아영, 「九龍齋 白鳳來의 『論語』 圖說 研究」, 2020.
- ③과 관련: 한상우, 「조선후기 의성김씨 천전파의 통혼권·병호 시비와 관련하여」, 2009.
김성오, 「17世紀 陝川 地域 兩班의 婚姻 네트워크-『晉陽河氏世譜』의 분석을 통하여」, 2017.
- ⑤와 관련: 안승환, 「19세기 단성 재지 사족 김인섭의 사회관계망」, 2018.
이경진, 「18세기 재해 前·後 女戶 등재의 계층성 연구-『慶尙道丹城縣戶籍大帳』을 중심으로」, 2018.
- ⑥·⑦과 관련: 전수경, 「韓弼教의 『隨槎錄』 研究」, 2010.
장진영, 「海藏 申錫愚의 『入燕記』 研究」, 2011.

이를 고려하면 동아시아학술원의 동아시아학 디지털은 실제 참여 연구자와 학문 후속세대, 대학원생이 참여하는 연구공간이기도 하고 교육과 관련한 연구 활동 결과물의 제시이기도 하며, 한편으로는 향후 새로운 R/C를 위한 기초자료의 빅 데이터이기도 하다. 디지털을 통하여 학술적 자료의 수집·가공은 물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연구의 시각을 생성할 수도 있으며, 새로운 R/C를 통한 동아시아학의 새로운 장도 생성될 수도 있다. 이 점에서 존경각의 역할은 적지 않다.

구체적인 사례 두 가지를 통해 동아시아학술원 존경각의 디지털 동아시아학의 실재를 보기로 한다. ‘대구 및 단성 호적 DB’와 ‘한국경학 자료시스템’은 모두 존경각

이 연구팀과 함께 기획하고 BD로 전환한 것이다. ‘대구 및 단성 호적 DB’ 사업은 교육부의 지원을 받아 2001년부터 15년 동안 단성현과 대구부 호적을 대상으로 디지털로 전환한 것이다. 장기 기획을 통하여 연구자들의 효율적인 연구와 방대한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DB 작업을 한 것이다. ‘한국경학 자료시스템’의 경우 한국경학 자료는 대동이 1988년부터 11년 동안 전국에 산재한 문집과 고전문헌을 수습하고 그중에 경학 관련 부분을 집성하여 145책을 영인하였다. 하지만 이 방대한 자료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색인은 물론 원문도 접근하기가 용이하지 못하였다. 이에 존경각에서는 2000년대 초반에 한국전산원에서 전담하는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의 하나로 선정되어 ‘한국경학자료 DB 구축 사업’을 진행하였다. 이 DB를 통해 한국의 경학 자료를 체계적으로 디지털화하여 원문 검색과 색인 기능을 비롯하여 방대한 분량의 원문 자료를 연구자에게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위에 제시한 한국의 호적과 족보의 DB화는 가족 재구성과 계보를 추적하거나 관찰하고, 조선 시대 사회구조와 역사 인문학 연구의 확산, 호적과 족보의 인물 정보와 비교분석을 통하여 융합적 시각과 분석방법론 등을 통하여 학술적 이슈를 제기한 바 있다. 특히 전근대 호적과 족보의 DB화는 친족·혼인 네트워크에 의한 계보학 연구의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학술적 비전을 보여주었다.

한편, 동아시아학술원 존경각이 추구하는 디지털 동아시아학은 연구와 교육 면에서 다음과 같은 전략과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존경각의 전략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한 동아시아학 관련 자료를 전산화, BIG-DATA 확보
- 동아시아의 한자 문화, 유교 문화, 역사문화에 대한 종합적 네트워크 구축
- 국내외에서 연구기초자료를 수집, 정리하고 DB화하여 연구기반을 구축
- 동아시아학 자료의 전산화에 기초하여 통계학, 언어학, 사회학, 인류학, 컴퓨터 전산학 등 사회과학 및 자연과학과의 공동연구 추진
- 연구 분야별 전문 웹사이트 구축을 통한 새로운 융합학문 연구의 기반 제공과 동아시아 인문학의 새로운 연구방법론 제시
- 기초자료의 가공과 DB 구축을 통하여 관련 연구의 학술적 향상과 학문 후속세대 양성

그간 존경각이 자료정보 센터로 구축한 자료의 현황은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존경각 소장 자료 현황

(2019.11.기준)

구분	고문헌	일반자료	비 도서자료 (마이크로필름, CD)	일반자료	총계
점(책)수	143,728	61,754	21,186	61,7544	252,877

이 현황에서 보듯이 존경각은 전근대 동아시아학의 근간인 유교 경전, 족보, 희귀본 고문헌을 비롯하여 근현대 동아시아학 연구의 기초가 되는 해외자료와 국내 유일본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장서각의 마이크로필름은 모두 소장하고 있으며,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각, 중국 국가도서관 등의 희귀 마이크로필름 등도 일부 소장하고 있다.

IV. 대학원 한문 고전번역 협동과정과 비 학위 교육프로그램

동아시아학술원은 동아시아 고전학 중심의 연구기관인 대동문화연구원을 계승하여 탄생하였다. 이러한 전통을 이어 국내 최초로 한문 고전의 정리 및 번역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학원에 ‘한문 고전번역 협동과정’을 개설한 바 있다. ‘한문 고전번역 협동과정’은 고전 번역학으로 석·박사 학위를 준다는 점에서 ‘고전 번역학’의 새로운 교육모델을 창출하기 위한 대학원 교육프로그램이다. 한문 고전번역 협동과정은 ‘2007년 수도권 대학특성화지원 사업’의 하나로 기획하였다.

애초 한문 고전번역 핵심인재를 양성하려는 목적하에 민족문화추진회와 MOU를 맺어 “한문 고전의 정리와 번역을 ‘학술적’으로 수행하고, 한문 고전이 현대에 소통할 수 있도록 가공하며, 한국인문학의 발전적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창조적 번역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인재상”을 지향하였다. 이를 위해 “전통과 현대, 현장과 교육, 실무와 이론을 결합한 교육의 모델을 제시”²²⁾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을 교육과

22) 성균관대학교, 『2007년 수도권 대학특성화지원 사업 신청서-한문 고전번역 핵심인재 양성사업:

현장이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기획단계에서부터 기초작업·원전정리와 번역, 그리고 평가·출판에 이르는 6단계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한학/번역학/문헌학/콘텐츠’ 등 4개 영역으로 나눈 다음 그 하위에 43개 강좌를 배치하였다.²³⁾ 이러한 교육과정의 틀에 따라 교과목의 일부 출입은 있지만, 교육과정의 기본 틀은 지금까지 유지하면서 고전번역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한문 고전번역 협동과정은 연구의 결과물을 학위로 주는 것이 아니라, 번역의 성과를 통해 고전 번역학의 학위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번역 대상 자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고전번역 대상 자료의 경우, 기왕에 번역되지 않았지만 학문적으로 의미가 있거나, 미번역 상태의 한문 고전자료나, 번역 후 연구자에게 학문적 파급효과가 있는 고전번역 자료의 번역을 요구하고, 여기에 충족해야만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학술 번역은 물론 충실한 주석 및 이본이 있으면 교감을 하고, 더 나아가 작자와 번역 대상의 기초적 이해를 위하여 연구 논문에 준하는 해제를 붙여 번역 대상 자료의 학문적 의미를 충분히 규명할 것을 요구하였다. 연도별 입학자의 수는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한문 고전번역 협동과정(대학원) 입학자 현황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입학자 수	11명	5명	7명	5명	4명	4명	4명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입학자 수	2명	5명	3명	4명	1명	2명	

대학원 한문 고전번역 협동과정의 입학자가 최근 몇 년 동안은 제외하면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형편이다. 2008년 개설 당시 경쟁률은 거의 10:1에 달할 정도로 많은 인원이 몰렸다. 이는 고전 번역학의 수요가 있던 이유도 있지만, 수도권 특성화 사업에 선정되어 입학생에게 국고로 장학금을 전액 지원하는 데다, 공부 모임과 학술답사 등 다양한 학습 관련 지원을 하였기 때문이다. 개설 당시 대학원 한문 고전번역 협동과정은 인문학 분야 대학원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응시율이 높았다.

소통·학술·창조적 번역 인재양성을 위한 新교육 모델』 1면 참조.

23) 앞의 신청서, 52~53면 참조.

그러다가 장학금 제도가 2012년부터 한국고전번역원에서 지원하는 시험 응시 후 합격자에 한하여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응시율이 낮아졌다. 여기에 한문 고전 번역 관련 대학원 시험을 통해 일정한 한문 고전번역 능력을 확인한 인력을 합격시키기 때문에 최근 몇 년 동안 입학자 수는 많지는 않은 실정이다.

지난 10여 년 동안 석사 2명과 박사 10명을 배출하였는데, 여기서는 박사 학위만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소 잠, 「徐有渠의 『毛詩講義』 연구와 譯註」, 2014.
- 노경희, 「沈大允의 『論語注說』 譯註」, 2015.
- 지금완, 「韓百謙의 『久菴遺稿』 譯註」, 2015.
- 이상아, 「茶山 丁若鏞의 『祭禮考定』 譯註」, 2015.
- 강민정, 「『九章術解』의 연구와 역주」, 2016.
- 조준호, 「柳健休 『東儒論語解集評』의 研究 및 譯註」, 2016.
- 이봉순, 「適菴 曹伸 詩의 譯註」, 2017.
- 윤기륜, 「崔象龍의 『論語辨疑』 譯註」, 2017.
- 안 현, 「申大羽의 『宛丘遺集』 研究와 譯註」, 2018.
- 오승환, 「雪壑 李大期の 『雪壑謏聞』 研究와 譯註」, 2018.

박사 학위 논문을 보면 경학 관련 자료를 역주한 것이 많지만, 한시와 문집을 비롯하여 산학서와 史禍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대부분 ‘연구와 역주’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데, ‘연구’는 해제에 해당하지만, 전체 논문을 읽어보면, 해제라기보다 실제 논문에 가까울 정도로 단순 해제를 뛰어 넘어 연구 논문을 지향하고 있다. 번역의 대상 작자와 대상 한문 고전자료의 연구를 통해 학술사와 문학사에서 그 의미를 충실히 규명하고 있다. ‘연구’만 떼어놓더라도 박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을 정도의 학문적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소잠의 경우, 중국 연구자로서 한국의 경학 자료를 백화문으로 번역하여 중국학계에 제공하여 동아시아 고전학²⁴⁾에 어울리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19세기 詩經學에서 새로운 해석을 보여준 徐有渠(1764~1845)의 시경 해석, 丁若鏞(1762~1836)

24) 동아시아 고전학은 진재교, 「동아시아 고전학과 한문 교육」, 『한문교육연구』 42, 2014, 37~66면 참조.

의 儀禮 인식과 이를 통한 경학의 일단, 19세기 사상사의 이단아²⁵⁾로 불렸던 沈大允(1806~1872)의 논어주석을 학술적으로 번역한 것 등은 19세기 경학사를 재조명할 수 있는 한문 고전자료를 학술적으로 완역한 점에서 새로운 학술의 장과 시야를 마련해 주고 있어 의미가 있다.

특히 南秉吉(1820~1869)의 『구장술해』의 완역은 연구자에게 조선조 후기 수학의 수준과 과학사 연구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고전번역의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있다. 향후 학술적으로 의미 있는 다양한 분야나 장르의 한문 고전자료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학술 번역의 성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제한국학센터인 IUC(Inter-University Center at SKKU)²⁶⁾는 한국학의 세계적 발신과 해외 한국학자를 연결하기 위한 ‘한국학의 세계적 Hub’를 지향하며 기획한 비 학위 교육프로그램이다. IUC는 2015년 9월에 해외 한국학 전공자와 대학원생을 위하여 학술 한국어와 한국학의 토대가 되는 한자와 한문 교육을 아우르는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대체로 이 교육프로그램은 해외 한국학 연구자들이 한국학 연구 과정에서 부딪치는 원전 자료를 이해할 수 있도록 강독 능력을 향상하고, 논문 작성에 필요한 한국 내 관련 연구자와의 학술적 연결과 한국학계의 학술적 흐름을 시차 없이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IUC는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향후 학술 한국어 교육의 중심이 되어 해외 한국학 전공자들 상호 간의 학술적 네트워킹과 함께 한국학이 세계 학계와 소통할 수 있도록 구상하였다.

25) 진재교 외 지음, 『19세기 한 실학자의 발견-사상사의 이단아, 백운 심대운』, 성균관대 출판부, 2016.

26) 이 교육프로그램은 2013년에 전미 아시아학회(AAS) 한국학위원회(CKS)의 IUC설립추진단 대표인 캐나다 UBC의 로스 킹(Ross King) 교수와 UCLA의 존 던컨(John Duncan) 교수가 한국학을 전공하는 차세대 연구자와 대학원생들이 한국에서 학술적 한국어와 한자와 한문을 수학하는 교육프로그램의 필요성을 황호덕 교수(성균관대)에게 언급하였고, 동아시아학술원은 BK21+사업에 이 교육프로그램을 연동하기로 하고, 2014년에 전 미국 아시아학회(AAS) 산하 한국학위원회(CKS)의 승인을 거쳐 MOU를 맺고 이를 시행하였다. IUC는 기획단계부터 전미아시아학회(AAS) 한국학위원회(CKS)의 승인하에 시행하였기 때문에 IUC의 실행 위원회(IUC Executive Committee)가 IUC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을 하기로 하고, IUC 공동대표로 캐나다 UBC의 로스 킹 교수와 미국 UCLA의 존 던컨 교수가 맡았다. 하지만 교육과정 전체를 동아시아학술원 산하의 IUC에 위임하였다.

IUC의 교육과정은 1년 단위(8~10개월)로 이루어지지만 한 학기(4개월)를 기본으로 하며, 여름방학에는 방학 단기 프로그램(2개월)을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구체적인 교육과정의 구성은 2개월(8주)을 하나의 단계(Module Period)로 구분하여 수업을 진행하고, 전체 교육프로그램은 총 4단계(8개월)로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²⁷⁾ 과목 중에는 한국학 관련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오는 전문용어를 이해하는 과목도 개설하였고, 발표 수업도 개설하고, 대학원이나 대학에서의 한국학 전공 관련 수업을 청강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표 6〉 IUC 교육과정의 구성

학기	단계	구성	기간
1학기	MP1	- 기본적인 학술 한국어 어휘 및 표현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함	2개월(8주)
	MP2	- 학술적 글쓰기 및 발표능력 향상을 목표로 함	2개월(8주)
2학기	MP3	- 심화된 학술 한국어 어휘를 학습하고 한국 학술장에서 발표할 수 있는 수준의 소논문(발표문) 작성을 목표로 함	2개월(8주)
	MP4		2개월(8주)

IUC의 교육과정은 애초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위에 제시한 정규과정의 단계 외에도 버디(buddy)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한국 대학원생과의 1:1 혹은 多:多 멘토링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청강 수업을 마련하여 수강하는 해외 한국학 전공자가 전공과 관련된 대학이나 대학원 수업의 청강을 마련함으로써 학습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이 외에도 한국학 연구자를 연결해 주거나 한국 연구자와의 학술자 네트워크를 위하여 정기적인 특강과 학술 이슈를 선정해 학술 토론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하였다. 특히 IUC의 교육과정에 참여한 해외 한국학 전공자들 상호 간에 상시 교류할 수 있도록 고려하였다. 여기에 학위논문이나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구주제와 관련이 깊은 성균관대 교수나 연구자를

27) 현재 IUC 회원대학은 UCLA, UBC, Harvard대, Michigan대, USC 5개교이며, Pennsylvania대, Chicago대, Georgetown대, 호주국립대(ANU), Leiden대, SOAS, Sheffield대 등이 참여 의사를 보이고 있다. 회원 교는 연간 8천 달러의 회비를 받고, 회원교 출신 학생은 수강료를 감면해 주고 있다. 수강료는 정규학기의 경우, 회원교 대학원생은 1인당 5천 달러, 비 회원교의 대학원생은 1인당 7천 5백 달러이며, 여름학기의 경우 회원교 대학원생은 1인당 2천 5백 달러, 비 회원교 대학원생은 1인당 4천 달러를 받고 있다.

배정하여 한국학계의 흐름을 시차 없이 파악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이러한 결과 꾸준한 지원자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그간의 성과를 보여주는 징표다.

<표 7> IUC의 연도별 대학별 등록 인원과 국가

학기	지원(명)	등록(인원, 국가)	불합격 및 미등록 ²⁸⁾
2015년 여름	4	4명(미국4)	0명
2015년 가을	5	3명(미국2, 폴란드1)	2명
2016년 봄	2	2명(미국2)	0명
2016년 여름	12	6명(미국3, 캐나다1, 독일1, 싱가포르1)	6명
2016년 가을	12	8명(미국5, 캐나다2, 이스라엘1)	4명
2017년 봄	10	7명(미국4, 캐나다1, 멕시코1, 러시아1)	3명
2017년 여름	8	4명(미국2, 러시아1, 우크라이나1)	4명
2017년 가을	8	5명(미국2, 캐나다1, 프랑스1, 조지아1)	3명
2018년 봄	7	3명(미국1, 캐나다1, 영국1)	4명
2018년 여름	10	7명(미국6, 프랑스1)	3명
2018년 가을	6	3명(미국2, 우크라이나1)	3명
2019년 봄	7	4명(미국2, 캐나다1, 우크라이나1)	3명
2019년 여름	6	6명(미국4, 캐나다1, 우크라이나1)	0명
2019년 가을	8	4명(우크라이나1, 미국1, 러시아1, 인도1)	4명
2020년 봄	10	6명(우크라이나1, 미국1, 러시아2, 캐나다1)	4명
2020년 여름	6	3명(우크라이나1, 캐나다1, 러시아1)	3명
2020년 가을	8	5명(미국1, 캐나다1, 호주1, 러시아1, 우크라이나1)	3명
6년	129명	14개국 80명	49명

위의 <표 7>에서 보듯이 현재 60여 명의 대학원생이 수료하였으며, 한국학 관련 14개국 80여 명의 학문 후속세대가 이 과정을 수료한 후, 해외 대학교수, 공공 기관,

28) '불합격'하거나 미등록한 경우, 가나, 아제르바이잔, 베트남, 중국, 일본 등의 대학원생도 있었다. IUC의 고급학술 한국어과정 입학은 원했으나, 한국어교육과 한국학 학술연구의 일정한 자격을 갖추지 못해 서류 및 면접 전형에서 탈락한 인원이며, '등록 포기'는 합격 요건에 해당하나 외부 지원을 받지 못해 최종적으로 입학할 포기한 경우이다.

대학 강사, 국내 대기업, 한국학 관련 박사과정 진학 등 다양한 경로로 진출하고 있다. 사실 IUC와 같은 교육프로그램은 해외 한국학의 진흥과 확산, 그리고 해외의 주류학계와 소통을 위해 필요한 제도다. 일본만 하더라도 일본학의 확산을 위해 요코하마 IUC 센터를 설치하였다. 일본의 IUC는 미국의 스텐포드 대학과 연계하여 요코하마 시내에 독립건물과 함께 8명의 전담인력을 통해 해외 일본학 연구자에게 학술 일본어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도 칭화대학에 IUC 센터를 마련하여 캘리포니아 버클리대학과 연계하고 있는데, 33명의 강사가 참여하여 해외 중국학 전공자에게 고급학술 중국어를 가르치고 있다. 동아시아에서 이들 두 기관은 인프라와 규모 면에서 동아시아학술원의 IUC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규모가 크다. 중국과 일본은 모두 自國學의 해외 확산을 위해 정부 주도로 시행하는 반면, 한국의 IUC는 전혀 그렇지 않다. 하지만, 동아시아학술원의 IUC를 통해 배출한 전공자들이 성장한다면 해외 한국학의 학술적 심화와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동아시아학술원은 2011년부터 동아시아 삼국의 정부가 각 대학기관의 공동 교육·연구를 지원하는 Campus Asia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동아시아학술원은 일본의 오카야마[岡山] 대학과 중국의 길림대학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장·단기에 걸쳐 다양한 학술 교류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테면 대학원생과 연구자를 상호 교류와 학점 취득, 공동연구와 공동교재의 개발, 그리고 학술적 이슈의 학술세미나 등 다양한 교육·연구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시켜 중국과 일본의 대학에 연구자와 대학원생을 보내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다. 학술원은 중국과 일본의 대학기관과 교류하는 한편, 연구자와 대학원생의 Campus Asia 사업 참여를 통해 연구자 상호 간의 학술네트워크는 물론 학문 후속세대 간의 네트워크도 점차 확장해 가고 있다.

V. 맺음말

동아시아학술원은 개원과 함께 연구를 교육과 결합하는 방식을 기획하며, 이를 실천해 왔다. 대학의 연구기관에서 교육 기능을 함께 운영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례적인 만큼 지난 20여 년간의 성과 또한 현재 진행형이다. 분과학문이 굳건한 대학의 학문 생태계에서 새로운 학문적 영토의 구축과 유연한 학문 지형도의 수용은

그만큼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대학의 연구기관에서 연구와 교육을 결합하는 모델은 여전히 유효하다. 동아시아학술원은 이러한 방향성을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다. 연구 성과를 교육에 환원하는 이른바 연구 성과가 시차 없이 교육으로 이월되고, 여기에 디지털 동아시아학의 성과가 결합하는 방식이 가능할 때 한국인문학의 創新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아시아학술원이 추구하는 방향은 한국 대학에서 새로운 유연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 학문 단위를 재구축함으로써 학문의 지형도를 재구조화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안정적으로 구축하고자 한 학술적 비전의 제시다. 이를 위하여 연구·교육·디지털을 결합하는 동아시아학술원의 교육모델은, 한국 대학의 생태계에서 보면 시사하는 바가 크고 학술 장에서의 이슈도 상당한 셈이다. 학술적 전환과 학문 생태계의 변화는 대학에서의 새로운 제도 구축과 교육모델의 정착을 통해 실현할 수밖에 없다. 제도적 구축이란 기존의 대학 내의 학문 지형도의 경직된 틀과 달리 유연해질 때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 가능성은 교육을 통해 실현되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이 점에서 기존의 대학 내의 학문 지형도에서 연구와 교육을 통합하여 실현하기란 여전히 어렵다. 이러한 대학 내의 현 상황을 고려할 때, 학문 단위로 구성된 분과학문이 아닌 연구기관에 교육 기능을 결합하는 방식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실 새로운 학문 단위의 생성과 대학 내의 학문 생태계의 재배치는 향후 인문학의 전략적 비전이자 현실이다. 그 실현의 가능성은 연구기관을 활용해 성과를 확인한 후 이를 다시 분과학문의 학문 단위로 접속하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도 있다. 동아시아학술원은 지난 20여 년 동안 동아시아학의 정립과 제도적 안착을 위하여 이러한 길을 걸어왔다. 동아시아학술원이 추구한 연구와 교육의 통합, 나아가 연구·교육·정보(DB 혹은 디지털)의 통합을 통한 기획과 실천은 이러한 비전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실마리다.

동아시아학술원은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동아시아학 연구의 방법과 시각의 창신을 통해 열린 동아시아를 지향하는 것으로까지 나아갔다.²⁹⁾ 이와 함께 교육의 방향 또한, 인문학과 사회과학을 융합하고, 전통과 근현대를 아우르며, 한·중·일의 상호 비교를 통해 객관적인 연구 시각을 확보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무엇보다 실재하는

29) 열린 동아시아학의 경우, 동아시아학술원이 2018년에 제출한 「2018년 HK+인문기초학문 연구계획서」 요약문 참조.

객관적 기초자료를 토대로 연구의 넓이와 깊이를 兼掌하는 실사구시의 교육모델을 지속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하여 동아시아의 역사와 문화상을 특정 시간이나 시대, 국가나 지역, 분과학 문에 국한하지 않고, 서로의 경계를 열어 두고 접근한다는 인식론적 방법과 시각을 견지하여 연구하고 이를 교육으로 환원하는 것은 유효하다. 시간상으로는 고대에서부터 동시대에 이르는 시간을 연결하거나 넘나들고(transhistorical), 공간상으로는 일국과 지역의 경계를 가로지르는(transnational or transregional) 방법과 시각, 학문 간의 장벽을 허물고 상호 교섭을 포섭하는 동아시아학의 추구가 중요하다. 연구와 교육을 통합하고 디지털의 성과³⁰⁾를 반영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적 장치를 끊임없이 확인하고, 여기에 맞는 인재상의 기획과 교과목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호응해야 할 것이다.

투고일: 2020.11.10

심사일: 2020.12.08

게재확정일: 2020.12.08

30) 이를테면 동아시아학 고전학에서 디지털의 성과를 제시하고 이를 교육과 결합할 가능성은 진재교, 「빅 데이터와 디지털 동아시아학의 가능성-동아시아 지식과 지식인 지도를 중심으로」, 『대동문화 연구』 98, 2017, 119~162면 참조.

참고문헌

- 동아시아학술원 제2단계 BK21사업 신청서, 『동아시아학 핵심인재 육성을 위한 융합사업단』, 2006
- 동아시아학술원 인문한국 지원사업 지원신청서, 『소통과 확산: 동아시아 연구를 통한 한국인문학의 창신』, 2007
- 동아시아학술원, 『2007년 수도권 대학특성화지원 사업 신청서-한문고전번역 핵심인재 양성 사업: 소통·학술·창조적 번역 인재양성을 위한 新교육 모델』, 2007
- 동아시아학술원, 「2018년 HK+인문기초학문 연구 계획서」, 2018
- 성균관대학교, 『BK21 21세기 지식기반사회 대비 고등인력양성사업 인문·사회분야 ‘동아시아 유교문화권 교육·연구단’』 지원신청서, 1999
- 한기형 외, 「동아시아학술원 발전계획(안) 연구 결과 보고」, 2001
- 동아시아학술원 홈페이지(https://aeas.skku.edu/aeas/education/east_asia.do)
- 김시업·마입섭 편, 『동아시아학의 모색과 지향』, 성균관대 출판부, 2005
- 대동문화연구원 편, 『대동문화연구원 50년: 1958~2008』,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8
- 진재교 외 지음, 『19세기 한 실학자의 발견-사상사의 이단아, 백운 심대운』, 성균관대 출판부, 2016
- 백영서, 「사회인문학의 지평을 열며」, 『東方學志』 149, 2010
- 진재교, 「동아시아 고전학과 한문교육」, 『한문교육연구』 42, 2014
- _____, 「빅 데이터와 디지털 동아시아학의 가능성-‘동아시아 지식과 지식인 지도’를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98, 2017
- 한기형, 「동아시아적 시각에 의한 한국학의 재정립」, 『대동문화연구원 50년』,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8

An Integrated Model of Research and Education in the Academy of East Asian Studies and Its Achievements

Jin, Jae-kyo

The Academy of East Asian Studies, with its opening in 2000, has been planning and practicing ways to combine research with education. It is rare for a university research institute to run educational functions together. As such, the graduate education and performance of the Academy of East Asian Studies over the past two decades are currently ongoing. How research institutions practice the model of combining research and education in the academic ecosystem of universities where the separated academic discipline is solid is still valid. The Academy of East Asian Studies should continue this direction. This is because the so-called research results, which return research results to education, are carried forward to education without time lag, and how the achievements of digital East Asian studies are combined can contribute fully to the new development of the domain of Korean humanities studies.

Key Words : Academy of East Asian Studies, Integration of Research and Education, Graduate East Asian Studies, Translating Pre-modern Korean Text in Classical Chinese, Jon'gyeong'gak Library, digitalization of East Asian Studies

